

『중국술각법』의 내용과 의미 고찰

김달우(전북대학교 교수) · 김산*(전북대학교 학술연구교수)

국문초록

본 연구는 1935년 동충의가 저술한 『중국술각법』이 가지는 체육사적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 서적의 제사와 서문을 분석하고 해석하였다. 당시 사회지도층이었던 군인이거나 정치인 4명과 당시 무술교육에 많은 영향력을 가졌던 5명 등이 써준 제사는 이 서적이 가지는 사회적 위상이 높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어 5개의 서문에서는 이 책이 가지는 역사성, 실용성, 현대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서적은 당시 군사적 효능과 강한 중국인을 양성하는 데 필요한 술각이라는 중국 무술의 근대화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술각, 유술, 민국시대, 중국 무술

*subyuksan@hanmail.net

I. 서 론

『중국술각법』은 1935년 상해에 있던 동충의가 쓴 중국의 술각에 관한 전문 서적이다. 이 서적이 출간되었을 때는 새로운 중국이 만들어지는 시기인 ‘중화민국시대’였다. 중화민국시대는 청왕조가 운명을 다한 1911년 신해혁명 이후부터 1948년 신 중국정부가 세워지기까지 기간을 칭하며 짧게 ‘민국시대’라고도 하는데 당시 중국은 여러 지역에 군벌들이 난립하였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같은 유럽의 강대국이 근대화 이전의 중국을 약탈하던 시기였으며, 당시 아시아 신흥강국인 일본도 차츰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던 시기였다.

민국시대 이전에는 청나라 정부에서는 1840년에 일어나 아편전쟁 이후 군사력과 민족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중체서용(中體西用), 즉 당시 강대국인 서양의 방식을 차용하여 중국을 강하게 만들려는 노력이 시도 되었고, 이러한 이유에서 서양의 군사체계와 체육 체계도 중국에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내에서는 중국의 무술을 사용하여 중국인들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택하려고 추진하는 세력들도 있었다.

즉 중국의 신체문화 유산으로 강한 중국을 만들고자 한 운동으로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1910년 광인갑과 진철생이 상해 지역에서 주도했던 정무체육회와 1928년 군인 출신 장지강에 의해 북양정부의 후원하에 전국 규모의 활동을 한 중앙국술관이 있다(린천풍, 2023).

정무체육회와 중앙국술관의 활동에 의해 중국 무술 전수가 활발했던 1930년대에는 중국 무술에 관한 서적이 많이 출간되었고, 다양한 무예 연구자가 활동하여 의화단의 난과 같이 중국 무술 전수에 있어 신비한 내용으로 각색했던 부분을 걷어내고 실제적인 신체문화로서 중국 무술을 발굴하고 정리하던 시기라고 할 것이다.

이 시기에 출판된 중국 무술 서적 중 상대를 타격하지 않고 상대를 넘겨 제압하

는 신체문화인 술각에 관한 그림이 아닌 사진을 사용 한 가장 근대적 방식으로 만들어진 서적이 동충의의 『중국 술각법』이다. 물론 이 서적 이전에 서구 열강의 충격에 의해 봉건적 문화가 부정되었고 의화단 사건으로 인해 중국무술에 대한 인식이 불편하던 시기였던 1911년 서양열강에 의한 피동적 근대화의 흐름 속에서 중체서용의 방식으로 서양의 체조를 응용한 마량의 『중화신무술 술각과 상편』이 최초의 술각에 대한 실재적인 서적이지만, 중국무술의 체계적인 전수가 활발했던 1930년대에 출판된 동충의의 『중국술각법』은 술각을 비롯한 중국 무술이라는 중국적인 신체문화에 인식을 살펴 볼 수 있는 점에서 무예사적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왜냐하면 중국의民国시대(1911년)는 근대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근대 이전의 많은 문화에 변화가 요구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현대 무술이라는 신체문화가 만들어진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민국시대 중국 무술교육에 관한 연구로는 박귀순(2008)의 「중국 무예사연구-정무회와 중앙국술관의 설립을 중심으로-」, 박귀순(2021) 「중앙국술관 창건에 따른 중국의 무예와 체육의 전개」와 육우용, 박태승(2014)의 「중국근대 민간무술단체에 관한 고찰-중화무사회(中華武士會)의 설립, 활동 및 인물을 중심으로-」, 린천풍(2023)의 「중국 근대 무술교육 정착과정에 관한 연구」 등의 연구들이 있다.

또한 중국 술각에 관한 체육사적 연구에는 박귀순(2020)의 「송조시기 『각력기(각력기)』에 관한 소고(小考)」와 김산(2017)의 「중국의 씨름 술각(摔角) 연구」와 김산(2022)의 「최초의 술각전문서적 ‘중화신무술 술각과 상편’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진행되었으나 아직까지 민국 시대의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특히 동충의는 1920년대 ~ 1930년대 당시 정무체육회와 중앙국술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1948년 신중국 성립 이후에도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제자를 양성한 인물로서 현대 중국술각에 있어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지만 한국에서는 그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서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 먼저 서적의 첫머리에 기재된 제사(題詞)들과 서문들을 분석하고 해석하였는데 주로 제사와 서문을 쓴 인물과 그 내용을 살펴 동충의라는 인물이 저술한 술각이라는 중국 무술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서적의 목적과 의미를 살펴 이 서적이 가지는 체육사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II. 제사

제사란 그 책과 관련되는 노래나 시 등을 적인 글로서 책의 내용과 책의 저자와 관련한 인물들이 써서 보내는 것인데, 지금 서적의 추천서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제사를 쓴 사람과 그 내용을 살펴 보면 이 서적이 가지는 위상을 고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사를 쓴 인물이 어떤 사회적 배경과 그 내용을 고찰하였다.

본 서적에는 총 16개의 제사가 있는데 제사를 쓴 사람의 이름을 확인할 수 없는 1건을 제외하고 15건의 이름 중 중국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와 자료로 확인한 인물은 군인이나 정치인인 조곤, 류상, 오철성, 이대초와 무술 관련한 인물인 진공철, 장지강, 오감천, 황백년, 왕장비가 있고, 확인이 안되는 반지전, 이공간, 류비, 향종정, 공운전, 엽량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확인된 인물의 제사를 먼저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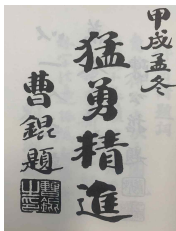


그림 1. 조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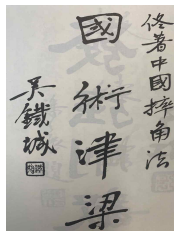


그림 2. 오철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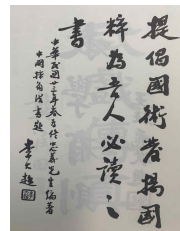


그림 3. 이대초

먼저民国시대 사회 지도자적 높은 위상을 가졌던 군인이자 정치인을 살펴보았다.

<그림 1>는 1923년 제 5대 중화민국 대통령을 역임했던 군인이자 정치인인 조곤(曹錕 1862 - 1938)이 쓴 것으로 동충의는 개인적으로 1911년 조곤의 경호원을 한 적이 있었다.

그 내용은 갑술년(1934년) 초겨울에 쓴 것으로 ‘맹용정진(猛勇精進)’으로 어떠한 일을 열심히 정성을 다해 노력하고 나아가라는 의미로서 동충의가 술각을 가르치기 위해 교재를 만드는 일을 독려하기 위해 써서 보낸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2>는 국민정부 입법원부원장을 역임한 정치인으로 1932년부터 상해시장¹⁾이었던 오철성(吳鐵城 1888 - 1953)이 쓴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동저중국술각법(修著中國摔角法)’은 동충의가 저술한 『중국술각법』을 지칭한 것이며 본 내용으로는 ‘국술진양(國術津梁)’으로 국술 즉 중국 무술을 통해 동량 즉 인재를 양성하라는 의미이다.

<그림 3>은 1930년대 상해시정부비서를 역임했던 이대초(李大超 1900 -1980)²⁾가 쓴 것으로 오른쪽 내용은 ‘국술 즉 중국무술을 제창하고 중국문화를 드높이고자 하는 당신은 이 책을 반드시 읽으시오’³⁾이며 왼쪽 내용은 ‘중화민국23년(1934) 봄 동충의선생이 편집하고 저술한 중국술각법의 의해 제사를 쓴다’⁴⁾이다.

<그림 4>는 사천군벌이었던 류상(劉湘 1888 - 1938)⁵⁾이 쓴 것으로 그 내용은 ‘술각기술이란 옛 기술을 현재 전하는 것으로 옛 나라의 풍격 찾는 것이다. 술각

1) 吳鐵城（原国民政府立法院副院长）_百度百科 (baidu.com) 2023. 9.29

2) 바이두에서 이대초를 검색했을 때 4명의 인물이 검색되는데 이중 시대적으로나 지역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1930년대 상해시정부비서를 역임하였으며 항일전쟁 이후 광둥성정부참을 역임한 이대초가 가장 유력한 인물로 보임.

李大超（广东五华籍国民革命军将领）_百度百科 (baidu.com)2023. 9.29

3) 提倡國術發揚國粹爲吾人必讀之書

4) 中華民國二十參年春爲修忠義先生編著中國摔角法書題

5) 刘湘（民国时期四川省主席、陆军一级上将）_百度百科 (baidu.com) 2023.09.29

의 수련을 통해 스스로 강해지고 건강이 꾸준히 쌓인다면 마침내 웅대한 힘이 생기는데 그 힘은 생각으로 얻을 수 없는 용기가 들어나는 것이다. 새로 편집한 이 서적에서는 비결이 보이는데 소림무술의 으뜸인 기술(少林宗法)을 멀리 떨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쇠약하고 힘이 없었던 현실을 분명히 일으킬 수 있다.’⁶⁾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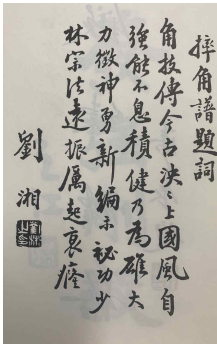


그림 4. 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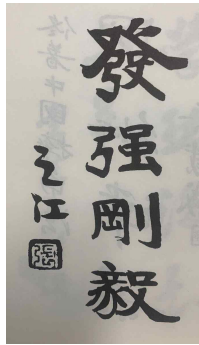


그림 5. 장지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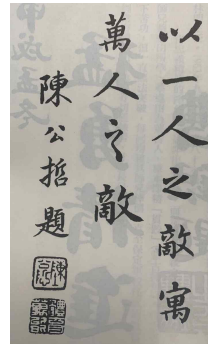


그림 6. 진공철

다음은 무술에 관련한 인물들의 제사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그림 5>는 1930년대 중국 국술운동을 주도했던 중앙국술관 관장이었던 장지강이 쓴 것이다. 내용은 ‘발강강의(發強剛毅)’로 강하고 굳세며 강한 의지를 드러나다 라고 해석 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원래 고위직 군인이었던 장지강이 중국 무술을 통해 자신의 병에서 회복한 이후 중국 무술을 통해 중국인들을 강한 민족으로 만들어 힘든 민국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국가적 차원으로 국술운동을 전개하던 장지강의 의지를 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어 <그림 6>은 상해 정무체육회의 실제적인 지도자였던 진공철이 쓴 것으로

⁶⁾角技傳今古決上國風自強能不息積建乃為雄大力徵神勇新編示秘功少林宗法遠振屬起衰癯

그 내용은 ‘한사람이 강해져 한 명의 적을 상대 할 수 있으면 만 명의 적도 상대 할 수 있다’⁷⁾ 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장지강의 중앙국술관과 함께 사회운동 차원에서 국술운동을 전개했던 진공철의 정무체육회에서 추구하던 사상으로 건전한 시민 양성으로 만인의 적을 상대 할 수 있는 건강한 중국을 만들려고 한 그의 의지를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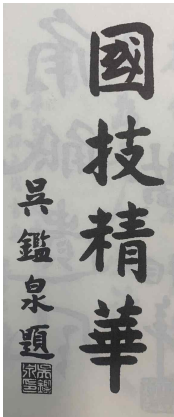


그림 7. 오감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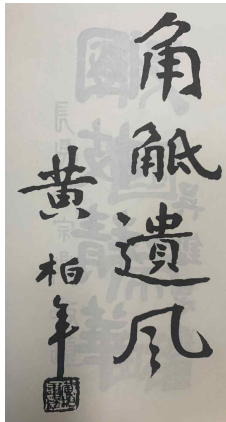


그림 8. 황백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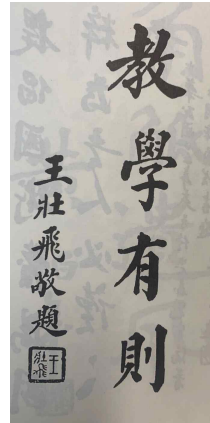


그림 9. 왕장비

다음으로 <그림 7>은 오식태극권의 창시자이며 1928년부터 상해에서 무술을 전수하였고, 상해정무체육회와 상해국술관에서 초빙되어 학생들에게 태극권을 가르쳤으며, 1928년부터 1936년까지 상해시에서 개최한 많은 무술대회의 심판위원으로 활약 했던 오감천(1870 -1942)의 글이다(昌滄, 周荔裳, 1993)(昌滄, 周荔裳, 1993). 그 내용은 ‘국기정화(國技精華)’로서 술각이 국기 즉 중국 무술 중 중요한 기술체계라고 높이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음으로 <그림 8>은 근대 형의권의 명사였던 이존의 문하에서 형의권과 팔괘

7) 以一人之敵寓萬人之敵

장을 수련하였고 1931년 남경중앙국술관에 초빙되어 형의권, 팔괘장, 창술등을 가르친 무술교육가인 황백년(1880 - 1954)⁸⁾이 쓴 것으로 그 내용은 ‘각저유풍(角觝遺風)’으로 술각이란 중국 역사에서 오랜 시간 전해져 왔던 각저의 유풍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당시 술각이 청나라 시대 몽골 씨름인 브호의 형식이었지만, 결국 중국 역사에서 존재하던 각저와 연관성이 있다는 내용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림 9>는 궁보전에게 팔괘장을 배운 사람으로 1923년 상해체육 사범학교교무주임을 하였고 1928년 1933년 국술고시에 감찰위원으로 참가하였으며, 1934년 상해시공공체육장국술부책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신중국이후에도 활동한 무술가였던 왕장비(昌滄, 周荔裳, 1993)가 쓴 것으로 그 내용은 교학유측(敎學有則)으로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에는 규칙이 있다는 내용으로 이 서적이 술각의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규칙 즉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한 교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제사들을 분석하면 결국 동충의가 만든 이 책은 사회적 위치가 높은 이들과 당시 국술 운동의 주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위상이 높은 서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Ⅲ. 서 문

이 서적에서 진가현, 김일명, 당호, 서치일 그리고 동충의 본인의 총 5개의 서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 서문을 적은 인물들을 살펴 보면 이 서적이 만들어지던民国 시대 가정 저명한 무술 연구가인 당호와 저명한 무술 스승에게 무술을 사사 받은 저명한 무술가이자 중국 무술 연구자였던 김일명과 서치일 그리고 동충의의 벗인 진가현과 이 서적의 저자인 술각의 대가였던 동충의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서적의 저자인 동충의의 서문을 시작으로 진가현, 김일명, 당호, 서치일의 서문 순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⁸⁾黄柏年(黄柏年)_百度百科(baidu.com) 2023.09.29

1. 동충의의 서문

『중국무술인명사전』에 의하면 만주족 출신의 동충의(1878 - 1963)는 장권 계통 회족 출신 무술가로 이름이 높은 왕자평(王子平)(Yao Yao, 조성근, 2022)과 함께 “창주이결(滄州二傑)”이라 불릴 정도로 이름이 높은 무술가로 청말부터 민국시대 그리고 신중국 성립 이후에도 중국 무술과 전통적인 의술로 이름이 높았던 사람이었다(昌滄, 周荔裳, 1993).

그의 집안은 만주족의 황족이었던 팔기중 정백기(正白旗)에 속했던 집안이었고 대대로 무술을 전문으로 하는 집안이었기에 동충의 역시 6세부터 무술 수련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는 그의 부친으로부터 소림육합문(少林六合門)의 권법을 배웠으며, 팔선검, 쌍검, 쌍도, 쌍구, 쌍극, 묘도, 마도, 도창, 곤봉, 방천극, 손빈과, 궁술, 탄궁과 같은 무기술도 정통하였다고 한다.⁹⁾ 원래도 신체조건도 좋았고, 특히 팔힘이 좋았던 그는 술각에서는 적수가 없어 당시 무술계에서는 “술교대왕(摔跤大王)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웠다. 그는 1902년 경성순포궁무술총교두에 임명되었고, 1910년 보정육군무술총교두에 임명되었으며, 1911년 청의 멸망 이후에는 정치인이었던 조곤의 경호원의 무술교두와 안휘군대 무술교관에 임명되었다. 이후 1922년 상행에 충의권사(忠義拳社)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무술을 전수하였으며 상해국술관(上海國術館) 소림문주임교사(少林門主任教師)를 역임하였고, 기남대학(暨南大学), 동아체전(東亞體專), 강서체전(江西體專)에서 무술을 가르쳤으며, 정무체육회에서 술각을 가르쳤다. 1928년 남경에서 제1차국술고시와 1933년 제2차 국술고시에서 심판을 맡아서 활동을 하였고, 1935년 58세의 나이에 중앙국술관의 요청으로 사진작가인 홍지방 등의 도움을 받아 『중국술각법』이라는 서적을 저술하였다. 그의 술각은 가전 무술이 아닌 그의 아버지의 제자인 몽골인으로 몽골 씨름에 능했던 채진전(蔡進田)에게 배운 것으로 북평술각(北平摔角) 계통으

⁹⁾ 佟忠义_百度百科 (baidu.com) 2023. 09. 27

로 볼 수 있다.

그의 서문에서는 무술이란 강자존(强者存)의 세계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며 생존의 방법으로 발전하였고, 중국 무술도 발전하였지만, 화약무기가 사용 되는 당시 상황에서 맨손으로 쳐서 싸우는 것은 효능이 떨어지지만 술각 기술은 전쟁의 마지막 단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¹⁰⁾. 즉 술각이 전쟁의 기술로서 효능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당시가 서양열강에 의해 중국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국술관이 설립하였고 술각을 전문과목으로 운영하는데 교과서가 없는 관계¹¹⁾로 이 서적을 만들게 되었다고 이 서적의 제작 이유를 설명하였다.

또한 동중의는 이 책을 통해 술각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고 연구되어 지게 된다면 스스로를 보호하고 나라를 지킬 수 있어 동아병부(東亞病夫)라는 치욕을 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국제적평등¹²⁾을 얻고자 한다는 목적을 서술하였다.

즉 동중의의 서문에는 열강의 침입으로 인해 중국이 동아병부라는 치욕을 당하고 있을 때 국가차원에서 중앙국술관을 설립하고 군사적인 효능성이 있는 술각을 전문과목으로 삼아 수업을 하는데 교재가 없어 이를 서적을 만들었고, 술각이 많은 국민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연구되어 진다면 국민 스스로가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이를 통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것이 이 서적을 저술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중앙국술관에서 제창하는 강종구국의 방법으로 술각이 널리 전해져 강건한 중국인이 되어야 중국의 위기를 이길 수 있다는 사상적 배경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진가현의 서문

10) 欲於刀槍棍棒彈藥砲火不繼之時舍徒手肉搏無能爲力之間而得勝利於最後之五分鐘者則摔角之術大用於時矣

11) 列強虎視受辱已極..現今國民政府..力圖自強特設立中央國術館摔角專科..但摔角一科雖屬重要而傳流尙乏專書

12) 尙希海內賢達匡以不逮..倘能藉此喚起國人之主意而再加研究廣爲提倡以達到人人有自衛衛國之能力..一雪東亞病夫之恥辱而奪得國際平等地位

진가현은 동충의의 벼으로 자신을 소개한다. 진가현에 대한 자료는 구할 수 없어 본 연구에서는 그가 쓴 서문을 분석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진가현의 서문에는 술각은 바로 전시대인 청나라에서는 팔기군이 군사훈련 중 목이었고 궁중 연석자리의 오락거리로 사용되던 중요한 신체문화였다¹³⁾는 역사적 배경에서 시작한다.

당시의 술각이 몽골이나 티벳에서 기인한 기술 체계이며¹⁴⁾, 시합방식을 설명하면서 이 신체문화 역시 중국 고대의 각저와 유사하며 여러 역사 기록을 통해 이 기술 체계는 군대와 민간의 스포츠로서 존재한 역사¹⁵⁾가 중국에서 유구하였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사제 전승의 체계보다는 이 서적의 발간을 통해 학자간에 토의를 한다면 이 기술체계가 더 발전할 수 있다¹⁶⁾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술 체계는 서양의 올림픽 운동의 레슬링이나 일본의 유도 방식¹⁷⁾과 같으며 단지 상대방을 넘기는 것으로 승부를 내지 말고 상대방을 눌러 무기력하게 제압하는 방식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고 서술하였다.

즉 진가현의 서문에서는 당시 술각의 형태는 몽골이나 티벳에서 왔으나 상대방을 넘기는 방식의 신체문화는 중국에서 유구한 역사를 가졌으며, 바로 전시대인 청나라에서는 군대와 민간의 스포츠 형식으로 중요한 위치였음을 서술하면서 이 서적이 만들어짐에 기술이 공개되고 학자간의 토론을 통해 더 발전 할 수 있는 점에서 이 책이 가지는 의미를 들어내고 있다.

13) 盛於有清八旗士兵泰半肄習宮庭宴享恆演此以爲娛樂

14) 說者謂其淵源於蒙人之貫跤藏人之布庫

15) 已爲軍隊及民間盛行之體育

16) 著之成書便於學者之探討則今後此術或且益加精備

3. 김일명의 서문

김일명(1896-1966)은 형의권, 팔괘장, 태극권으로 유명한 손녹당(1860-1933), 석가권, 사로사권, 형의용형검등의 명가였던 당전경(唐殿卿, 1852 - 1925)등에게 무술을 배웠고, 민국9년(1920년)에 금릉경찰관학교(金陵警官学校)를 수료한 인물로서 1927년부터 중앙국술관 남경중앙국술관 편집처 부처장을 지냈다(昌滄, 周荔裳, 1993). 그는 중국 무술인들에 관한 서적인 『국술명인록』, 관절을 꺾는 기술인 금나술에 관한 『擒拿淺釋』, 『孫式太極拳與擒拿』을 비롯하여 많은 저서를 저술한 무술가이자 무술이론가였다.

그가 쓴 서문은 1933년에 치루었던 2차 국술 국가고시(박귀순, 2018)¹⁸⁾에서 심사위원을 맡았던 동충의의 인연으로 시작하며 술각의 역사와 현대적 위상 그리고 이 서적의 의미와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서문을 쓴 이유를 서술하고 하였다.¹⁹⁾

김일명은 당시 술각이라는 신체문화가 가지는 의미를 고대 역사를 즉 각저(角觝)라는 명칭의 기원과 진한시대 관람적 요소로 바뀌었나, 몽골인과 청나라 시대 군사의 훈련법으로서 사용되었던 것을 서술하였다.²⁰⁾

그리고 당시 민국시대 술각은 권술, 검술, 창술, 격투와 함께 당시 국가고시 종목의 하나²¹⁾였으며, 술각을 통한 훈련은 군사체육의 목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체문화²²⁾라는 것을 역설합니다.

18) 국술국가고시는 1928년 10월 15일 남경 공공체육관에서 처음 개최한 무술 시합 및 시험 형식 행사였는데 이는 국술운동은 주도한 중앙국술관에서 무술 인재를 선발하는 행사로 중국 무술을 대중화 하기 위한 행사였다. 2차대회는 1933년 10월 2일 개최되었다.

19) 二十二年十月舉行第二次國術國考 修忠義先生由本館函聘來京擔任評判委員 余見其年老力強 筋肉堅實

20) 有人说因为蚩尤能够用角和别人战斗，所以也称作“角抵”。中国秦汉时期，变为了戏剧。蒙古人用摔角选取大力士。到了清朝摔角称作“布库”，在清朝的军队中，大多士兵都会练习这个技术

21) 这次国考的项目有拳术,击剑,扎枪,摔跤,搏击

그러나 술각이 북방의 기술이었기에 남경과 같은 남방에는 그 술각이 잘 알려지지 않았고²³⁾ 술각을 설명하고 가르칠 교재 역시 없었던 당시 상황²⁴⁾을 기술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이 서적이 술각의 전문가인 동충의라는 술각의 대가에 만들어졌으며 홍지방이라는 예술가에 의해 편집된 우수한 서적이라는 것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그는 “국술은 예술성이 없으면 전파할 수 없고, 예술을 보좌하는 국술은 예술의 예술성을 더 잘 보여준다. 그래서 둘 다 상부상조할 수 있는 것라 생각한다.”²⁵⁾ 라고 기술하였는데 이는 책이 단지 지식의 전달이라는 것 외에도 예술성 즉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요소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무술의 대가와 예술가의 조합으로 만든 이 서적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민국시대 다양한 무술관련 서적을 저술했던 김일명이 설명하고 있는 실재적인 내용과 예술적인 구성이라는 내용에서 이 서적이 가지는 현대적인 의미를 살필 수 있다.

김일명은 더 많은 독자를 요구하는 책이 만들어지기 원하는 것은 이 책을 통해 술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술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술각을 통한 국가 인재를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싶다²⁶⁾는 내용을 통해 적극적으로 술각과 같은 중국 무술을 통한 강한 중국인을 만든다는 당시 강종구국(強種救國)과 같은 사상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 所以大家都公認通過摔跤可以鍛煉身體，使身體靈活。°所以通過摔跤能夠達到軍事體育的目的

23) 這個技術北方的人大多擅長。°在南方則較為少見

24) 但是可惜的是雖然這項北方的運動技術傳到了南方，但是傳播的並不廣泛，在南方缺少師資和教材

25) 國術如果沒有藝術性就不能傳播，藝術輔佐國術更能顯示藝術的藝術性。°所以兩者相輔相成。°於是這本書的出現能夠讓人有勇氣而且知道道義

26) 這本書出現的目的是造就國家的基本人才。°我也是出於樂於看到這種目的而寫了這篇序言

4. 당호의 서문

당호(唐豪 1896 - 1959)는 중국 민국시대 무술사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저명한 무술사학자이자 실재 무술을 수련한 무술가이다(昌滄, 周荔蓑, 1993). 특히 태극권의 역사 연구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연구자이다. 그는 이존의에게 형의권, 진발과에게 진식태극권을 사사 받았고, 1927년 일본유학시절 유도를 배우는 등 실제적인 무술에 대한 감각이 있었던 연구자로서 남경 중앙국술관 편집처장을 맡아 중국 무술의 과학화와 화려한 투로 중심의 무술 체계보다는 실전적인 무술을 추구하였고 『소림무당고』와 같은 연구로 근대 이전 중국 무술이 가지고 있었던 신화적 요소를 배제하고 실제적인 수련체계를 확립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였다.

그는 술각의 역사적 배경 즉 고대 각저의 이름이 갖는 의미와 상대방을 다치기 않게 하면서 서로를 겨루는 기술로서 술각을 설명하면서 『한서애제본기(漢書愛帝本紀)』를 비롯하여 『자치통감(資治通鑑)』, 신당서(新唐書)』 등의 역사서와 『장자』의 인간세, 『당추언(唐遮言)』, 『각력기(角力記)』, 『기효신서』, 『무비지』 등의 여러 역사적 서적의 내용을 들어 중국 역사에서 등장하고 있는 사건과 관점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그 서문을 시작한다.

당호는 명나라시대 일본으로 갔던 진원찬(陳元贊)이 일본 기도류(起到流)유술 창립에 영향을 미쳤다²⁷⁾는 내용과 유도에서 상대방을 넘기지 않고 치는 기술인 당신술(當身術)이 중국 권법에서 상대방의 급소를 치는 타격법²⁸⁾이라는 점, 그리고 1931년 자광각의 청나라 연회 그림에서 술각하는 역사들이 시합하면서 입는 옷인 답련(搭練)이 일본 유도 훈련에 입는 유도복과 유사한 점 등을 들어 일본의 유도가 결국 중국에서 유래했다²⁹⁾는 것을 주장하였다.

27) 明遺民陳元贊傳起倒流拳法於日本

28) 始明古時柔道本不廢擊蹴蓋其書中所附當身業可以爲證當身業云者即中國拳法家之穴法日本柔道既出中國

29) 圖中力士所穿上衣名曰搭練者 與日本柔道所服稽古衣 形製大體相同從知日本柔道

당시 일본의 유도가 미국이나 여러 나라에 유명해졌는데 그 이유가 러일 전쟁 당시 일본 유도 강도관의 창시자인 가노지고로(嘉納治五郎)의 제자였던 히로세(广瀬)중좌, 유미코(汤浅)소좌, 혼다(本田) 해군 중좌가 여순 전투에서 목숨을 바쳐 조종한 배를 항구에 침몰시켜 러시아 군함이 출항할 수 없게 하여 승리를 한 것에서 시작한다고 하였다. 당시 일본 정부에서는 이 세 명의 군인들이 수련했던 유도의 무사도정신훈련이 있었기에 그런 일이 가능했다는 논리를 펴서 유도가 주목받게 되었고 이로서 유도가 일반화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들면서 유도와 유사한 술각 역시 군사 훈련으로서 의미 있는 기술체계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마량이 민국 최초의 술각 교재인 『중화신무술 술각과 상편』을 만들었지만 여러 반대로 인해 교재로 쓰인 곳이 제한적이었다는 아쉬움을 들어내면서 일본에는 유도에 관한 서적이 많은데 비해 당시 중국에는 술각에 관한 서적이 적은 점을 들어 이 책의 중요한 위상을 설명하였다.

정리하면 당호의 서문은 술각의 중국에서는 역사적 배경을 학술적으로 서술하였고, 당시 무인 정신의 수련법으로 위상이 높았던 일본의 유도가 결국 중국에서 유래한 신체문화라는 점을 논술하면서 술각의 인재를 배양할 수 있는 이 책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시기가 전세계적으로 국가주의 또는 민족주의라는 사조가 만연한 시기였기 때문에 민국시대 당시 중국 무술을 통한 강한 민족을 양성하는데 중점을 둔 중앙국술관운동 역시 민족주의적 사상을 배경으로 활동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 무술 중에서도 특히 술각이 가지는 실용성과 중요성을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 당호가 설명하는 서적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5. 서치일의 서문

서치일(1889 - 1968)은 중국 절강(浙江) 사람으로 저명한 무술가이자 무술교육자 및 체육행정가였다.³⁰⁾ 1920년 오식태극권의 창시자인 오감천에게 오식 태극권을 사사했고 이후 태극권 연구하고 가르쳤다. 그는 1913년 북경법정대학교(北京法政大學校)를 졸업한 이후 상해대중화시공사무소협리(大中华火柴公司总事务所协理)에 1932년 취임하였고, 그해 10월 남경국민정부교육부체육위원회(南京国民政府教育部体育委员会)위원으로 피선되었다. 이후 1933년 상해시 운동 경기 심판 분야 부위원장이라 할 수 있는 상해시운동회국술비세부평판장(上海市运动会国术比赛副评判长), 1934년 중화체육회(中華體育會) 부회장, 상해시국술분관감찰동사(上海市国术分馆监察董事)의 직책을 맡으면서 상해 정무체육회 이사로 초빙되면서 동시에 무술을 가르치는 역할도 하였다. 민국시대 중국 무술관련 행정 분야와 교육 분야 그리고 연구 분야에서 많은 역할을 한 서치일은 1952년 상해체육회 소속 상해시무술연의회(上海市国术联谊会) 주석을 맡은 등 신중국 성립이후에도 중국 무술관련 행정 및 교육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였다. 그는 연구가로서 『太極拳淺說』, 『吳式太極拳』이라는 저서를 남겼다. 그의 서문의 내용을 보면 술각이 중국 고대의 각저라는 술각의 기원과 진한 이전에는 군대의 필수과목 이었고, 이후 민간에도 유행하게 되어 수당 시대 이후에는 중국 여러 지역에 술각을 잘하는 이들 많았다는 내용으로 술각이 보편적인 중국 무술이라는 것을 논술하였다.³¹⁾

이와같이 술각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무술이며 이 무술에 능한 동충의의 술각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그는 동충의의 술각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씨름 경기를 할 때 그의 자세는 매우 자연스러웠다. 그의 씨름의 기술은 가볍고 유연한 특징을

30) 昌滄, 周荔裳(1993), 『中國武術人名辭典』, p. 337.

31) 摔角就是中国古代的角抵。°秦汉以前, 僅爲军中必修的体育内容。°後始流傳民间。°隋唐之季, 因民间好尚頗稱風行, 五代承隋唐餘風, 兼以中原多故, 人多习武, 角抵之戲成極一時

보여 힘이 아닌 기술로 상대방을 이길 수 있다.³²⁾” 라고 하면서 그가 쓴 이 서적이 우수함을 이야기한다.

특히 동충의가 추구하는 술각은 “술각을 하는 사람이 미련하게 힘으로 겨루는 것이 아닌, 기술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³³⁾ 것이라 하면서 서치일이 느낀 내용이 단지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무술가들도 인정하는 바라고 하면서 글을 마치고 있다.

서치일은 동충의의 술각이 단지 힘으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것보다는 기술로 상대방을 넘기는 체계로 기술적 완성도가 높은 신체문화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동충의가 이 서적을 발행하는 이유가 단지 학술적 성과를 공개하고자 한다는 것보다는 다른 전공자에게도 이 기술 체계를 전해 주고자 한다³⁴⁾는 이 서적의 목적을 서술하고 있다.

IV. 결론

중국의 근대화의 시기였던 민국시대 중국은 서구 열강의 침략과 여러 군벌로 나누어져 분열되어 힘든 시기였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었고 이중 하나가 중국 무술을 통한 강한 중국인을 만드는 국술운동이었다. 이러한 국술운동에 여러 중국 무술들이 연구되고 사용되는데 그중 대표적인 종목이 술각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1935년 술각의 전문가였던 동충의에 의해 쓰여진 『중국술각법』이라는 서적이 가지는 체육사적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 서적의 제사들과 서문들을 분석하고 해석하였다.

16개의 제사들 중 써준 인물을 확인 한 것은 15개였으며, 그중 당시 사회지도

32) 與人對撲姿勢極爲自然其着法一以輕靈便捷爲主

33) 誠所謂能以術勝而不徒以力勝者也

34) 不僅合於學術公開之旨且將使世之從事斯技者

자충인 군인과 정치인에는 제5대 중화민국 대통령을 지낸 조곤을 비롯하여 당시 상해 시장이었던 오철성, 상해시정부 비서였던 이대초, 사천지역 군벌이었던 류상 등 있었다. 또한 무술관련 인물로는 국술운동을 주도했던 중앙국술관의 장지강, 정무체육회의 진공철, 오식태극권의 창시자인 오감천, 형의권과 팔괘장의 명가 황백년, 팔괘장의 왕장비가 있었는데 이들은 당시 무술 교육 분야의 높은 위상을 지니고 있던 인물들이었다.

그 내용은 술각이라는 중국 무술 종목이 가지는 실용성과 위상을 높이는 내용들이었다.

다음으로 서문들은 민국 시대 당시 무술가이자 무술연구가로서 이름이 높은 당호와 김일명을 비롯하여 태극권 명가인 서치일과 진가현과 저자인 동충의가 서술한 5개의 서문들이 있다. 이들의 서문들을 분석하면 술각의 역사성, 실용성, 현대성의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먼저 역사성은 술각이라는 기술 체계가 청나라시대 술각이며 그 형태가 몽골이나 티베트의 형식이지만 이러한 기술체계는 고대 중국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왔던 각저의 한 형태라는 것이며 당시 각광을 받던 일본의 유도에도 영향을 준 것이라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실용성은 술각은 전쟁의 실제적인 훈련법이며 기술체계도 실용적이지만 강한 정신훈련을 결국 정무체육회와 중앙국술관에서 추진한 국술운동에서 추구한 강한 중국인을 양성에 도움이 되어 어려운 민국 시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중국 무술이라는 내용이었다.

마지막으로 현대성인데 이전의 무술이란 스승과 제자간의 비밀스런 내용 전달에 비해 서적으로 출간되면 많은 이들이 공유할 수 있고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점과 술각의 전문가인 동충의의 내용과 사진 예술가인 홍지방의 편집으로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현대적 술각 서적으로서의 의미를 살필 수 있었다.

참고문헌

- 昌滄, 周荔裳(1993). 中國武術人名辭典. 인민체육출판사.
- 동충의 (1937). 中國摔角法. 中國率角社.
- 龐玉森(1996). 中央國術館史. 黃山書社出版社.
- 김산(2017). 중국의 씨름 술각(摔角) 연구. **무예연구**, 11(2), 1-20.
- 김산(2022). 최초의 술각전문서적 ‘중화신무술 술각과 상편’에 관한 연구. **체육사학회지**, 27(2), 1-11.
- 린칭풍(2023). **중국 근대 무술교육 정착과정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 Yao Yao, 조성균 (2022). 중국 근대 무술명가(名家) 왕자평(王子平)에 관한 문헌연구. **무예연구**, 16(3), 1-17.
- 박귀순(2008). 중국 무예사연구-정부회와 중앙국술관의 설립을 중심으로-. **체육사학회지**, 13(3), 73-84.
- 박귀순(2020). 송조시기 『각력기(각력기)』에 관한 소고(小考). **대한무도학회지**, 22(4), 1-16.
- 박귀순(2021). 중앙국술관 창건에 따른 중국의 무예와 체육의 전개. **체육사학회지**, 26(4), 81-94.
- 육우용, 박태승(2014). 중국근대 민간무술단체에 관한 고찰-중화무사회(中華武士會)의 설립, 활동 및 인물을 중심으로-. **체육사학회지**, 19(3), 129-143.

ABSTRACT

A Study on the Contents and Meaning of 『Jongguk Sol Gak buk』

Kim Dal woo(Jeonbuk Univ), Kim San(Joenbuk Univ)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interpret the recommendations and prefaces of the book in order to examine the meaning of the history of physical education in 『Jongguk Solgakbeop』 written by Dong chung ui in 1935. Four politicians who were social leaders at the time, and five people who had a lot of influence on martial arts education at the time, showed that the social status of this book was high. In the following five prefaces, the history, practicality, and modernity of this book were examined. In this regard, it was confirmed that this book contained the modernization of Chinese martial arts, which was necessary for military efficacy and strong Chinese cultivation at that time.

Key words: Chinese wrestling, solgak, republic of china period, chinese martial arts

논문투고일 : 2023.09.27

심사일 : 2023.10.18

심사완료일 : 2023.11.06